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뉴스레터 제 238 호

2020년 11월 1일

- 목 차 -

■ 협회 소식

1. Korea Leaders Summit (11/24 - 25)
2. [회원사] 반부패 실무그룹 2 차 미팅 결과 공유 (10/16)
3. 국회 <기업 반부패 협력 포럼> 발족식 결과 공유 (10/27)
4. [회원사] ESG 실무그룹 2 차 미팅 안내 (11/5)
5. 기업재생에너지이니셔티브(CoREi) 2 차 워크숍 안내 (11/6)

■ SDGs 소식

1. [COVID-19 와 기업 지속가능성] UNGC 회원사 대응 사례 - 서울주택도시공사
2. [SDGs 솔루션] 폐기물을 선글라스로 제작해 해양 오염에 맞서기

■ UNGC 회원 뉴스

1. 포스코, KT 와 스마트 그린도시 구축
2. LG 화학, 녅달 후 사라지는 생분해 소재 개발
3. 한국동서발전-SK 가스, 손잡고 '그린뉴딜' 확산
4. 아모레퍼시픽, 기후 변화 중·장기 전략 추진...신재생에너지 비율 63% 증가

5. 새마을금고, 활발한 국제교류로 새마을금고 시스템 전파

■ **회원사 안내**

1. 신규가입회원
2. COP/COE 제출회원
3. 2020년도 연회비 납부 해당 회원사 안내
4. UNGC 로고 사용정책
5. 한국협회 가입 안내

협회 소식

1. Korea Leaders Summit (11/24 - 25)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2020년 11월 24- 25일 '2020 Korea Leaders Summit'을 온라인으로 개최합니다.

국내 최대 기업 지속가능성 포럼인 'Korea Leaders Summit'은 지속가능성을 지향하는 비즈니스 리더들을 위해 UNGC가 추구하는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와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등 다양한 이슈 전반의 정부·기업·국제기구·학계·시민사회의 전문가들을 한자리에 초청하여 기업 지속가능성의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올해는 특별히 '뉴노멀 시대의 기업지속가능성'를 주제로 코로나19 이후의 지속가능한 회복과 뉴노멀 시대의 기업 지속가능성 향상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본 행사를 통해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모인 정부 및 국제기구 고위급 인사, 지속가능성 이슈 전문가, 국내 주요 기업 대표들이 전하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전략과 함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해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행사 개요

2020년 11월 24-25일 | Virtual Summit

대상: UNGC 회원사/관심 기업 및 기관

Day 1 (11/24)

시간		프로그램
14:00 - 14:05	5'	2020 Korea Leaders' Summit Week 및 Day 1 안내
14:05 - 14:10	5'	개회사 - 이동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회장
14:10 - 14:15	10'	축사 1 - 산다 오잠보(Sanda Ojiambo)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 (영상)
14:20 - 14:40	20'	기조 연설 1 -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
14:40 - 15:00	20'	기조 연설 2 - 이회성 IPCC 의장
15:00 - 15:20	20'	기조 연설 3 - 국내기업 CEO
15:20 - 15:25	5'	UNGC 20주년 기념 안토니오 구테레스 사무총장 연설 (영상)
15:25 - 15:35	10'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LEAD 회원 세레머니
15:35 - 15:45	10'	지속가능한 시장 환경 조성 기여 국회의원 세레머니 - UNGC/KoSIF
15:45 - 17:05	80'	특별 세션 1: 팬데믹과 ESG 투자 환경 변화 및 대응
17:05 - 17:10	5'	Day 1 Wrap-up

Day 2 (11/25)

시간		프로그램
10:00 - 10:05	5'	Day 2 오전 세션 안내
10:05 - 10:10	5'	UNGC 20주년 기념 영상
10:10 - 10:15	5'	UNGC X 블라인드 서베이 결과 발표: 기업 내 인권 및 성평등 인식조사
10:15 - 11:35	80'	[TGE] 분과 세션 1: 국내 기업 여성 리더십 향상 시사점
11:35 - 12:55	80'	분과 세션 2: '포스트코로나19 노동시장 변화와 기업 인권'
12:55 - 13:00	5'	Day 2 오전 세션 Wrap-up
13:00 - 15:00	120'	오찬 및 휴식
15:00 - 15:05	5'	Day 2 오후 세션 안내
15:05 - 15:10	5'	기후변화와 기업 지속가능성
15:10 - 16:30	80'	[CoRE] 특별 세션 2: 재생에너지와 기업의 미래
16:30 - 16:35	5'	UNGC X 블라인드 서베이 결과 발표: 기업 내 반부패 인식 조사
16:35 - 17:55	80'	[BIS] 분과 세션 3: 기업과 반부패
17:55 - 18:00	5'	Day 2 오후 세션 Wrap-up 및 폐회

주요 연사



반기문
前 유엔 사무총장
UNGC 한국협회 명예회장



안토니오 구테헤스
(Antó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



산다 오감보(Sanda Ojiambo)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



이희성
IPCC 의장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앤 케언즈(Ann Cairns)
마스터카드(Mastercard) 부회장
30% 클럽 글로벌 회장



잭 린(Jack Lin)
MSCI 아시아 총괄 대표
및 상임이사



히로 미즈노
現 테슬라 이사
前 GPIF CIO



김용현
한화자산운용 CEO (대표이사)



신진영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원장



양원준
POSCO 기업시민실
실장 / 전무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여지영
SK텔레콤 SV이노베이션센터
Open Collaboration 그룹장



김성우
김앤장 환경에너지 연구소장
및 이도 사외이사



줄리 코포드(Julie Kofoed)
유엔글로벌콤팩트 인권 총괄

[KLS 참가신청 바로가기](#)

2. [회원사] 반부패 실무그룹 2차 미팅 결과 공유 (1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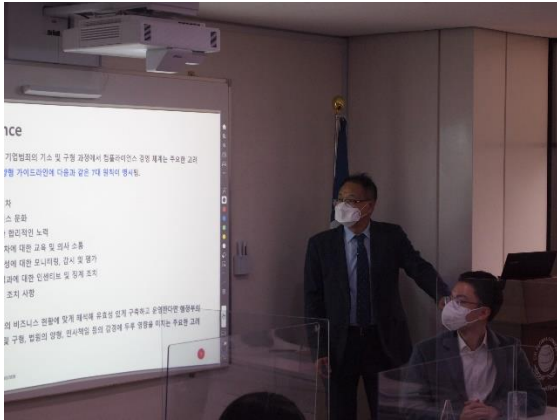


* 참석자(가나다 순): 기술보증기금, 동아쏘시오홀딩스, 롯데쇼핑, 법무법인 지평,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서울산업진흥원, 예금보험공사, 포스코인터내셔널,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중부발전, 한전KDN, BSI Group 등 반부패·윤리경영·컴플라이언스 담당 실무자 23명

* Co-Chair: 롯데쇼핑 김정배 책임, 한국무역보험공사 강나영 대리, UNGC 한국협회 이수란 과장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는 10월 16일(금) 2020년도 반부패 실무그룹 2차 미팅을 가졌습니다. 본 미팅에는 반부패 실무그룹 중 총 14개 기업 및 기관이 참석하였으며, 현재 기업 컴플라이언스의 국제 표준이 될 ISO/DIS 37301에 대해 알아보고, 코로나 팬데믹에 대응하여 각 참여사가 어떤 반부패·컴플라이언스 정책과 전략을 수립 및 운영하고 있는지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박석범 UNGC 한국협회 사무총장은 인사말에서 “본 실무그룹에는 민간 기업 및 공공기관 등 다양한 곳에서 참여하고 있다”며, “반부패경영 정착을 위해 서로의 사례와 애로사항을 공유함으로써 지속적인 상호학습을 통해 발전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문형구 반부패협력대사는 “현 시국처럼 어려울 때일수록, 규정과 절차, 공정성을 더욱 강조해야 한다”며, “이러한 컴플라이언스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주요 행위자는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이라고 말하며, 참가한 기업 및 기관의 실무자들이 해당 사안에 대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본 미팅에서는 BSI 그룹 이종호 위원(前 BSI대표)를 초청하여 ‘컴플라이언스 매니지먼트와 조직의 레질리언스’에 대한 발표를 들었습니다. 이종호 위원은 “컴플라이언스는 조직이 내외부적으로 존재하는 다양한 사안에 대해 법규와 규제 등 준수 의무를 수용하고 이행하는 문화”라며, “최근 제정 추진 중인 ISO/DIS 37301은 기존의 ISO 37001보다 더 포괄적인 기업 컴플라이언스 표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ISO/DIS 37301은 조직의 전방위적 활동과 제품, 인재 채용 전반에 걸쳐 모든 법규와 규제에 대해 기업이 컴플라이언스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비즈니스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기업의 평균 생존 기간이 짧아진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컴플라이언스 경영 체계 확립을 통한 선제적인 대응이 기업의 레질리언스 확보에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이수란 과장이 글로벌 리서치 자료를 토대로 COVID-19 와 반부패에 관한 가이드라인 및 서베이 결과 등을 소개하였습니다. 특히 ‘유엔글로벌콤팩트 임팩트 브리프’를 통해 COVID-19이 기업 반부패에 줄 수 있는 도전과 기회에 대해 설명하고, 국내외 반부패 전문 기관들이 제시하는 인사이트에 대해 브리핑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또한 포스트 코로나 상황에서의 기업의 혼란과 어려움을 이해하고 있다며, 함께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플랫폼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각 참여사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Challenges	Actions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코로나19로 생산 중단과 그로 인한 재무적 부담 증가 등의 일차적인 문제를 넘어 기업 활동에 대한 준비-감사, HR 등과 같은 기업의 다양한 분야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 2. 현재 기업들은 조직 내부와 공급망에 걸쳐 부패 위험(불법 금융의 흐름, 조직적 범죄, 이해 상충, 가격 인상으로 인한 폭리, 재무 보고 위조, 위조품 및 기타 범죄 행위에 대한 뇌물 수수 등)에 놓여 있음 3. 기업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재무 및 성과 목표를 달성하고 적절한 수준의 현금 흐름을 유지해야 하는 압박을 받고 있음 4. 기업이 적절한 제3자 주의 의무 없이 신속하게 잠재적 계약을 확보해야만 할 수도 있다. 5. 준비 감사인, 감사 및 조사관은 감독을 유지하고 감사 및 조사를 원격으로 수행할 방법을 확인해야 함 6. 의료 제품 및 서비스의 공공 조달 등에서 사기 및 부패의 위험이 증가하거나, 새로운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 7. 긴급경제지원 관련 제도의 감독 및 책임이 불충분할 수 있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코로나19와 관련된 사기 및 부패 위험을 식별하고 완화하기 위해 부패 위험 평가를 수행함 2. 부패 방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및 관행을 강화하고 직원 및 비즈니스 파트너 대상 가상 교육과정을 실시할 것을 고려함 3. 제3자의 주의의무를 강화하고 강력한 감독 메커니즘을 지속함 4. 코로나19로 인한 기업 및 직원 성과의 잠재적인 변화에 따른 재무 목표 및 인센티브 구조를 재평가하여 사기 및 부패 행위에 대한 압력과 동기를 경감함 5. 일관되고 포용적이며 투명한 정책을 전달하고 적용함으로써 소비자, 직원, 투자자, 공급 업체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강력한 윤리 및 진실성 문화를 장려함 6.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을 포함한 불법적이고 부적절한 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내부고발자 정책 및 보호를 도입하거나 강화함 7.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 금융 흐름과 관련된 부패 위험을 줄이기 위해 수익적 소유권(beneficial ownership) 정보를 자발적으로 게시함 8. 관련 정책, 법률 및 규제를 준수하고 핵심 가치와 윤리적 관행에 따라 제품 및 서비스를 제조, 유통 및 판매(또는 기증) 함 9. 반부패 공동노력 이니셔티브에 참여하여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공정한 경쟁과 성공 기회를 보장하고 지식과 재무, 그리고 기술 자원을 강화하여 더 큰 영향력을 만듦

〈UNGC Anti-Corruption Covid-19 Impact Brief〉

이어, 본 미팅에 참여한 실무진들은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가 사전에 제공한 ‘코로나19 체크리스트(COVID-19: Compliance Checklist for a Challenging Time)’ 진행 결과 및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자사의 부패 및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 전략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참여사들은

전반적으로 COVID-19로 인해 증대된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과 업무 프로세스를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본 미팅에서는 앞서 소개된 ISO 37001과 ISO/DIS 37301에 대한 많은 질의응답이 이뤄졌으며, 참여사들은 각각의 맥락과 전략에 따른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이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구분	현황
1. 컴플라이언스 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EO 준법경영 메시지 및 컴플라이언스 경영방침 홈페이지 게재 - 컴플라이언스 관련 주기적 캠페인 진행 - 정기 임직원 교육 - 행동강령 준수 여부 정기 점검 - 내·외부 홈페이지에 윤리경영 자료 게재 - 윤리경영 사이트 운영
2. 반부패/뇌물방지 컴플라이언스 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동규범 주기적 개정 및 공포 - 급행료 및 향응 자체를 금지함 - 전 직원 교육 의무화 및 이수현황 관리 - 매월 컴플라이언스 뉴스레터 발송 - 신산업 분야 특정감사 주기적 실시 - 반부패 리스크에 대한 정기적 평가 시행
3. 반부패/뇌물방지 컴플라이언스: 기부 및 스폰서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부 금액별 사전 승인절차 운영 - 자금 관련 기록 및 일정 금액 이상의 활동은 감사부서의 확인 후 집행 - 기부 시 체크리스트 첨부 의무화 - 협찬 시 공문, 계약 등 체결 의무화
4. 제3자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거래 리스크 체크리스트 운영 - ISO 37001 인증 취득 -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 특수관계인 거래승인 절차 구축 - 대가 지급 전 계약서 내용 일치 여부 확인
5. 계약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전자계약 운영 - 계약서 작성 및 주요사항 기재 여부 계약 담당자 확인 - 일상감사 강화를 통한 상시 모니터링
6. 정부 재정지원, 계약 및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빙 서류 필수 붙임 파일로 관리 및 준수사항 상시 확인 - 정부 입찰, 공급업체 비용 및 지출에 대한 문서파일 보존 관리
7. 내부고발자 핫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레드휘슬 등 내부신고 시스템 구축 - 모의 청탁비리 사건 신고 훈련 운영 - 청렴소리함 및 상시 감찰 등으로 불만사항 해소



마지막으로 향후 미팅에 대한 주요 계획이 논의되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에서는 국회의원 다수가 함께 참여하여 기업의 ESG 정보 공시 및 사회적 책임 공공조달 의무화 이슈 등을 논의하는 국회 <기업 반부패 협력 포럼>의 발족(10/27)과 Korea Leaders Summit(11/24-25)에 반부패 분과세션 등이 계획되어 있음을 공유했습니다. 또한 비교적 리스크가 큰 헬스케어 분야에 대한 BIS 세미나의 개최 계획(12월 초)에 대해서도 소개하며, 반부패 실무그룹 참여사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반부패 실무그룹 3차 미팅은 내년 2월경 개최될 예정입니다.

UNGC 한국협회는 반부패 실무그룹과 BIS홈페이지(www.bis.or.kr)를 통해 다양한 반부패 관련 자료들을 공유하고, 상호 학습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원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문의: UNGC 한국협회 임재진 연구원 (T. 02-749-2149)

3. 국회 <기업 반부패 협력 포럼> 발족식 결과 공유 (10/27)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와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이 함께하는 반부패 프로젝트, ‘기업 청렴성 소사이어티 (Business Integrity Society, BIS)’는 지난 10월 27일(화),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국회 <기업 반부패 협력 포럼>의 발족식 및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국회 <기업 반부패 협력 포럼>은 기업을 비롯한 민간부문의 반부패 법·제도·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반부패 경영 환경을 조성 및 개선하고자 발족되었습니다. 본 국회 포럼을 통해 BIS는 비재무 정보공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ESG 투자, 등 시장친화적 반부패 법·정책을 매개로 기업 부패 리스크 관리 및 반부패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본 포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김영배 의원, 민형배 의원, 박찬대 의원, 설훈 의원, 신경훈 의원, 양이원영 의원, 오영환 의원, 이용우 의원, 이학영 의원, 홍익표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정의당 류호정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참여를 확정하였습니다.

국회 <기업 반부패 협력 포럼> 발족식

이번 발족식에는 포럼 참여 의원 7명이 참석하였으며, 문형구 반부패협력대사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참석해 축사와 기조연설을 하였습니다.



포럼 대표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은 인사말에서 “세계적으로 부패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각국에서 반부패 관련 규제법들이 도입되고 있으며, 현 정부도 5개년 종합 계획을 수립하여 반부패 달성에 노력하고 있다”며 “국회에서도 반부패 경영 활성화를 위한 관련 입법 및 정책 개발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하였습니다.

박석범 UNGC 사무총장은 축사에서 “본 포럼은 BIS 프로젝트를 통해 UNGC 한국협회와 KoSIF가 달성하고자 하는 비즈니스 투명성과 공정한 시장환경 구축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본 포럼이 올바른 반부패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투명성 강화를 위한 입법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습니다.



양춘승 KoSIF 상임이사는 부패가 경제적인 손실뿐 아니라 환경 및 사회적으로도 부정적인 임팩트를 가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선진국이 도입하고 있는 강력한 반부패 제도 추세에 함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반부패 관련 제도가 개인에게만 책임을 묻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국회의원들의 입법 지원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사회가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하였습니다.



이어 포럼에 참여한 국회의원들 또한 포럼 발족 소감을 전했습니다. (사진 순서, 좌측 상단-> 우측하단)

설훈 의원

“반부패는 경제 성장의 요인이며, 강력한 도덕적, 사회적 감시체계 및 각성 등이 부패를 줄일 수 있는 길이다”

이학영 의원

“국민적인 운동 시스템이 갖춰져서 아래서부터의 투명성 운동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김성주 의원

“국회의 법제도 정비와 기업 및 기관의 이해충돌 방지를 통해 청렴 경영을 달성해야 한다”

이용우 의원

“기업 투자 관련 경험을 통해 기업 투명성과 정보공개의 중요성을 느꼈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이해충돌을 막을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양이원영 의원

“에너지 운동에 20년 이상 참여하여, 재생에너지 논의에서도 부패 관행을 목격했다. 기업 부패를 개선하기 위한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강민정 의원

“공생하는 사회를 위해 기업, 소비자, 노동자 등 기업활동과 관련된 모두가 협력해야 할 필요하다.”

문형구 반부패협력대사는 축사를 통해 “반부패와 투명성 제고는 도덕적 측면에서 우월할 뿐 아니라 기업의 경쟁적 우위의 원천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설명하며, 특히 “부패는 당파성이 있는 의제라고 생각할 수 없다”며 본 자리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에게 더 많은 논의의 장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본 발족식을 위해 “정부의 반부패 정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전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국가의 청렴수준 제고가 단순히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회발전과 경제성장을 위한 당면 과제”라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와 일관되게 활동하고 있는 권익위의 정책 추진 현황을 소개하였습니다. 특히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지자체 청렴수준 제고를 위한 적극행정 유도 등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민간 부문의 긍정적인 피드백을 공개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국민들이 기존의 뇌물/금품수수뿐 아니라 부정청탁/갑질/불공정 등까지 부패하다고 인식하는 등 부패에 대한 관심과 눈높이 또한 현저히 높아진 만큼 이에 부응하여 권익위도 노력을 다할 것을 밝혔습니다.

국회 <기업 반부패 협력 포럼> 세미나

이어진 세미나에서는 이은경 UNGC 한국협회 실장과 이종오 KoSIF 국장이 각각 ‘글로벌 반부패 동향 및 기업 사례’와 ‘반부패 관련 정책 및 입법과제’를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또한 양춘승 KoSIF 상임이사를 좌장으로 두 발표자와 함께 최준우 한국변호사회 컴플라이언스 분과장(현대모비스 준법/지식재산 실장), 박종근 한국지멘스 실장,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장 등 반부패 전문가들이 기업 등 민간부문의 반부패 관련 제도 동향 및 시사점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최준우 한국사내변호사회 컴플라이언스 분과장은 현대모비스에 다년간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반부패경영을 위해서는 최고경영진의 의지와 인식이 필수적이라고 말하며, 전반적인 기업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SG, 준법경영 관련 기업 환경의 변화가 시작됐으며, 이제는 부패 기업에 대한 처벌에 의존하기 보다는 조직 내부의 반부패 통합 방안에 대한 고민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박종근 한국지멘스 실장은 지난 몇 년간 기업 반부패 관련 법이 강화되어 왔다며 한국 역시 이러한 추세가 주류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기업이 반부패 경영을 이행한다고 하더라도 기업이 이를 비용으로 보거나 조직 발전에 지장을 주는 요인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권오인 경실련 국장은 코로나 이후 투명성이 이전보다 강조되고 있으며, 정부 역할 또한 증대되었다고 전했습니다. 기업의 투명성과 부패정보 공개 요구 역시 국회가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기업의 부패행위를 실질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그 제도적 기반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은경 실장은 ESG나 반부패가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평가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망 협력사에 윤리경영을 권고할 때 '갑질'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어 특히 공공영역은 제도개선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3자 관리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경쟁력 있는 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도 중소기업의 참여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종오 KoSIF 사무국장은 공공부문 사회적가치 제고를 위한 전략에서도, 재정운용에 있어 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을 통틀어 사회적가치와 ESG 요소 특히 반부패를 내재화해나가야하며, 공공 부문에서의 컴플라이언스 문화가 민간 부문으로 확산되는 낙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사회를 맡은 이수란 UNGC 한국협회 과장은 향후 본 포럼이 관련 논의를 더욱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및 의견 개진에 대한 부탁으로 본 포럼을 마쳤습니다.

UNGC 한국협회는 BIS홈페이지(www.bis.or.kr)와 반부패 실무그룹을 통해 다양한 반부패 관련 자료들을 공유하고, 상호 학습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원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문의: UNGC 한국협회 박재영 연구원 (T. 02-749-2150)

4. [회원사] ESG 실무그룹 2 차 미팅 안내 (11/5)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가 ESG 실무그룹 2차 미팅을 개최합니다.

이번 2차 미팅에서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과 MSCI 관계자를 초청하여 ESG 평가 기준 동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또한 ESG 기업 대응 사례에 대해 알아보고, 참여사들의 ESG 평가 대응 결과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2차 미팅 일정 및 프로그램은 아래를 참고해 주십시오.

- **일시:** 11 월 5 일(목) 14:30 - 17:30
- **장소:** 영국대사관 아스톤홀
**행사 이후 네트워킹 세션 진행 예정*
**추후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연기되거나 온라인 회의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 **프로그램(안):**

시간	프로그램
14:30 - 14:35 (5')	인사말
14:50 - 15:05 (30')	연사 발표 1 -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윤진수 본부장
15:05 - 15:35 (30')	연사 발표 2 - MSCI 김선경 과장
15:35 - 15:45 (10')	휴식
15:45 - 16:00 (15')	ESG 기업 대응 사례 - UNGC 한국협회
16:00 - 17:00 (60')	ESG 평가 대응 결과 공유
17:00 - 17:30 (30')	실무그룹 운영 방안 논의
17:30 - 20:00 (150')	네트워킹 세션

▶ 문의: 여지원 연구원 (02-749-2150, gckorea@globalcompact.kr)

* 본 미팅은 실무그룹 사전 신청자에 한해 참여가 가능합니다.

5. 기업재생에너지이니셔티브(CoREi) 2 차 워크숍 안내 (11/6)



오는 11 월 6 일 기업재생에너지이니셔티브(CoREi) 두번째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CoREi 는 참여 회원사가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는데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2 차 워크숍에서는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RE100 지원 이행 방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고자 관련 기관 담당자를 초빙하여 정책브리핑을 진행하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다양한 재생에너지 조달 방안의 변화에 대해 청취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발표 이후 기업들이 한 자리에 모여 네트워킹을 강화할 수 있는 소통의 장도 마련하였습니다.

RE100 지원 이행 방안 발표와 더불어 한국정부는 2050 년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한국의 에너지전환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으며, 기업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한국판 그린뉴딜 발표에서도 과감한 녹색전환을 “정부의 마중물 역할과 기업의 주도적 역할의 결합”을 통해 이루겠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프로그램은 기업들이 새로운 제도적 변화에 잘 대응하고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기업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20 년 11 월 6 일(금) 14:00-17:00
- 장소: 주한 영국대사관 아스톤홀 (시청역)
- 프로그램:

시간	내용	발표기관/발표자
14:00-14:05	참석자 소개	사회자
14:05-14:10	인사말	주한 영국대사관
14:10-14:15	환영사	박석범 UNGC 사무총장
14:15-14:25	인사말 및 정책 동향	오승철 과장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14:25-15:00	재생에너지 구매 정책 세부 동향	김강원 팀장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15:00-15:20	재생에너지 금융 조달을 위한 고려 사항	최낙준 차장 코람코자산운용 에너지인프라
15:20-16:00	Q&A 및 자유토의	
16:00-17:00	네트워킹	

SDGs 소식

1. [COVID-19 와 기업 지속가능성] UNGC 회원사 대응 사례 - 서울주택도시공사



UNGC 가입: 2020. 2. 14

서울주택도시공사(SH 공사)는 1989 년 서울시민의 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지난 30 여년 동안 서울시 전체 면적의 3.3%가 넘는 43 개 지구 약 20.1km²의 택지를 개발하고 30 만 호의 공공주택을 건설 및 관리하며 서울시민의 주거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해 왔습니다.

SH 공사는 4 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주거복지를 넘어 청년주거문제, 미세먼지 등 현재 서울이 직면한 다양한 공간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혁신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주택인 '청신호'와 공공 공간을 확대하여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공간복지' 사업, 도심지 유휴공간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콤팩트시티', 그리고 혁신경영을 통해 시민의 참여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SH 공사는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해 '포용, 돌봄, 안전, 참여, 공정, 공생'을 6 대 핵심가치로 선포하고 사회적 가치 내재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5 대공사 최초로 독립적인 인권센터를 설치하여 인권 존중의 기업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SH 공사는 코로나 19 를 겪으며 우리사회가 배운 혁신과 연대, 상생의 가치를 통해 더불어 잘사는 서울을 위한 길을 끊임없이 모색하며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임대주택 입주인 건강 보호

SH 공사는 22 만 세대에 이르는 공사 임대주택 입주인의 건강과 코로나 19 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1 일 2 회 이상의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민원대, 출입문, 공용손잡이, 승강기 등에 대한 주기적 소독 및 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단지 내 모임을 줄이기 위해 경로당, 어린이집, 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의 이용을 제한하였고,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지역센터는 재계약 업무 등 주민 직접 접촉 업무를 잠정 보류하고, 단지 내 주민 참여 행사 또한 잠정 연기 조치하였습니다.

주거취약계층 긴급생계비 지원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다수 거주하는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경제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임대주택 입주인 중

주거급여(생계·의료급여 포함) SH 공사 직접수령자 2 만 9 천여 세대에 온누리상품권 10 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코로나 19로 인해 사람들이 외부활동을 줄이면서 소상공인들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공사는 지역경제 위축을 최소화하고 소상공인들을 위로하기 위해 공사소유 상가 임차인을 대상으로 월 임대료의 50%를 감면하였습니다. 사옥지하 입점상가, 임대아파트 입점상가, 그리고 가든파이버 입점 상가 총 993 개 업체가 혜택을 받았으며 2020 년 2 월부터 7 월까지 총 6 개월간 월 임대료의 50%를 감면 받았습니다(지원규모: 약 10.5 억원).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

공공부분 소비 및 투자 확대를 통해 내수경기 위축을 완화하고 민생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조기집행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공사는 선지급, 선계약, 조기구매를 추진하여 총 130 억원을 상반기로 당겨 집행할 예정입니다.



임대아파트 승강기 항균필름 부착

승강기를 통한 감염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될 즈음 공사는 입주민들의 불안감을 줄이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공사가 관리하는 임대전용 아파트 241 개 단지 승강기 버튼에 항균필름을 부착하였습니다. 공사 인근 1 개 단지에서는 임직원 약 40 명이 직접 승강기에 항균필름을 부착하는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자원봉사에는 사장, 노조위원장, 임원진들이 솔선수범하여 참여하여 코로나 19 를 함께 극복해 나가자는 공사의 의지를 입주민들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화훼산업 지원·의료진 응원 '함께 피어오름'

졸업식·입학식의 취소로 경제적인 손해를 입은 지역사회 화훼산업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수고한의료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한 사회공헌 사업인 '함께 피어오름'을 기획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공사는 총 5 천만원 상당의 꽃다발 1,600 개 및 화분 3,240 개를 소상공인들로부터 구입하여 코로나 19 전담병원인 서울특별시 서남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 의료진들 그리고 지역보건소 2 곳의 의료진에게 전달한 한편, 공사 임대주택 입주민과 임직원들과도 나누었습니다. 전달된 꽃다발과

화분에는 ‘코로나 19, 함께하면 반드시 이겨냅니다. 힘을 내세요.’라는 응원메시지를 담아 위기의 시대를 상생을 통해 극복하자는 공사의 마음도 함께 전달하였습니다.



쪽방 거주민 물품지원 ‘힘이 난다’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라 무료급식이 중단되고 사회적 보호망으로부터 벗어나 어려움을 겪는 영등포 쪽방 거주민들에게 개인방역 용품과 함께 식료품을 전달하였습니다. 영등포 쪽방촌은 SH 공사가 현재 국토교통부 및 LH 와 함께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한 공공주택사업을 추진 중인 지역으로 향후 개발사업이 진행되면 이곳 쪽방 거주민은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주택에 입주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공사는 거주민 전체인 총 510 여명에게 마스크, 손소독제를 포함한 개인 방역용품과 함께 쌀, 즉석식품, 삼계탕, 참치, 죽 등을 포함한 식료품을 담은 ‘힘이 난다’ 상자를 전달하였습니다.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은 5 월 12 일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고 함께 이겨내고자 하는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코로나 19 대책본부 설치 및 위기대응매뉴얼 수립

SH 공사는 2 월 초부터 사장을 대책본부장으로 둔 코로나 19 대책본부를 재난안전상황실에 설치하고 운영하였습니다. 코로나 19 대책본부는 기획조정실장, 경영지원처장 등 관리자급 9 인으로 이루어진 대책반과 본부·실 주무부장 8 인 및 건설현장 직원 72 명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상황반 그리고

주요관련부서 직원 15 인으로 이루어진 대책본부 요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책본부 설치를 통해 공사는 서울시 및 정부의 코로나 19 대응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기적·비정기적 대책회의를 통해 주요사항을 논의하고 대응방안을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내 확진자 발생 등 비상상황시 신속한 대처와 공사 핵심기능 유지를 위한 사옥폐쇄, 주요직원 복무계획 등이 포함된 대응매뉴얼을 수립하였습니다.

재택근무, 사옥방역 등 지역사회 감염예방 노력

지역사회감염 예방과 대중교통 혼잡도 완화를 위해 임직원의 근무시간을 10 시~19 시로 조정하고, 3 월부터 공사 전체 임직원 및 파견·용역업체 직원들의 교대형 재택근무를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구내식당의 혼잡도를 줄이기 위해 공간을 재편하고 식사시간을 분산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한 2 월부터 매주 전문 업체를 통해 사옥방역소독을 실시하였고, 사옥 내 주요위치에 손세정제를 다수 비치하였습니다. 또한 주출입구에 총 3 대의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여 발열 체크존을 운영하고 민원 접점부서 등 고객접촉이 많은 부서에서는 마스크를 배부하여 착용하게 하고 창구 가림막을 설치하였습니다.

공사현장 대응

건설현장은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이 많아 대응 초기부터 현장 내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현장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근로자에 대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였으며, 현장 내 방역용품들을 비치하였습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중국어, 영어로 된 교육 자료를 제작하여 현장에 배치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설현장 내 전파 및 확산을 방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공공 공사가 일시중지·연기될 경우에 계약상대방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계약연장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주택 공급일정 및 방법 조정

대규모 인원이 공사를 방문해야 하는 주택 공급·계약일정을 연기·조정하여 코로나 19 의 지역사회 감염 위험을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임대주택 7,596 세대에 대한 공고·접수·계약 일정을 2~5 월에서 5~7 월로 연기하였고, 방문접수 사전예약제를 실시하고 방문청약에 대한 주말접수를 가능하게 하여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에 동참하였습니다.



2. [SDGs 솔루션] 폐기물을 선글라스로 제작해 해양 오염에 맞서기



Sea2See 는 해양폐기물을 수집 후 원료로 활용하여 프리미엄 안경류와 선글라스를 제작합니다.

Sea2See 는 해양 오염 대응에 대해 어업 산업부와 뜻을 함께 하여 지역 어업인, 어로 장비 제조업자와 자연 환경에 도움이 되는 공급망을 구축하였습니다. Sea2See 는 어업인들이 플라스틱 폐기물, 고기잡이 그물과 밧줄을 놓아둘 수 있도록 100 개가 넘는 컨테이너를 스페인 해안 지역 내 30 개 항구에 비치하였습니다. Sea2See 는 지역 사회와 함께 일하며 유령어업(바닷속 폐기물 등에 물고기가 잡히는 현상)의 위험성과 해양폐기물의 문제점에 대해 알리고자 합니다. 날마다 평균 1 톤의 해양 폐기물이 폐기물 처리 플랜트로 옮겨져 분류됩니다. 분류가 된 폐기물은 선글라스 제조 공정을 위해 이탈리아로 보내지기 전에 새로운 소재로 재활용됩니다. 그 외의 소재들은 그물과 낚시줄 등 어업 도구를 제조하기 위해 재분배됩니다. 폐기물로 만들어진 선글라스가 형태를 갖춰 광학 시장의 품질 기준을 맞추기 위한 테스트를 받은 후, 이들은 Sea2See 의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통해 전세계로 판매됩니다.

Sea2See 는 전 세계의 소비자가 해양 정화에 기여하는 한편 변화의 일부분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기업은 “지속가능한 선글라스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착용하는 사람들이 바꾸는 것이다”라는 모토로 이를 표현합니다.

왜 Sea2See에 주목해야 할까요?

현 상황대로라면, 2050년에는 바다에 물고기보다 플라스틱 폐기물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유럽 지역 내 전체 해양폐기물의 1/3 이 버려지거나 분실된 어업 도구입니다. Sea2See 의 솔루션은 낚은 어업 도구와 기타 폐기물이 바다에 흘러들어가 해양 생물을 가두고 위협하는 유령어업 등의 환경 피해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솔루션이 다루는 지속가능발전목표



책임 있는 소비와 생산

Sea2See의 선글라스 제품은 100% 재활용된 해양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전체 재활용률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해양 생태계 보호

매년 유럽의 바다에는 11,000 톤이 넘는 버려지거나 유실된 어구가 발견됩니다. Sea2See는 버려진 어업 그물을 업사이클링 함으로써 유령어업의 리스크를 완화합니다.

[자세히 보기](#)

UNGC 회원 뉴스

1. 포스코, KT 와 스마트 그린도시 구축



- 포스코·KT, 친환경 가로(街路)시설 제작업체 마이크텍과 함께 ‘스마트 그린도시 구축을 위한 사업협력’을 체결
- 스마트 그린도시는 그린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환경부에서 추진중인 사업이며, 본 협약을 통해 3사는 지자체에 스마트 가로시설을 제안하기로 하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공동마케팅을 추진할 예정
- 이를 통해 폭염에 의한 가로수 고사 방지·생명 연장으로 도심 이산화탄소를 감축시키며 지상 설치 전력 및 통신선과 지하 매설 배관 등을 체계적으로 지중화(地中化)할 수 있어 도시 미관이 개선됨
- 본 사업에서 포스코는 부식에 강한 특수 철강재인 포스맥(PosMAC)을 급수블록과 보호대 소재로 공급하고 강재 이용기술을 제공할 계획
- KT 는 급수블록에 빗물관 모니터링 센서와 누설전류 감지 센서 등 IoT 센서들을 활용한 IT 인프라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

2. LG 화학, 녀달 후 사라지는 생분해 소재 개발



- LG 화학,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생분해성 신소재 개발에 성공
- LG 화학이 양산 시점으로 잡고 있는 2025 년 생분해성 소재 글로벌 시장 규모는 연간 10 조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추산
- LG 화학이 생분해성 신소재 개발에 나선 것은 유럽발 플라스틱 사용 규제안 도입 때문인데, 유럽연합은 내년부터 플라스틱 빨대, 면봉, 일회용 나이프와 포크, 접시 등의 사용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며 2025 년부터는 페트병의 최소 25%를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만들도록 함
- LG 화학은 옥수수 성분의 포도당과 폐글리세롤(바이오 디젤의 생산 공정 중 발생한 부산물)로 폴리프로필렌 등 합성수지와 같은 기계적 물성 및 투명성을 구현한 100% 바이오 소재를 세계 최초로 개발
- 본 소재는 상용화될 시 비닐봉지뿐 아니라 에어캡 완충재, 일회용컵, 마스크 부직포 등 다양한 용도로 쓰일 수 있음

한국경제

3. 한국동서발전-SK 가스, 손잡고 '그린뉴딜' 확산



- 한국동서발전과 SK 가스는 19 일 '울산 그린뉴딜 확산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
- 양사는 그동안 태양광 등 신재생사업과 함께 울산지역 내 청정 가스발전 분야에서 협력해온 바 있으며, 본 협약에 따라 울산 오일·가스허브를 기반으로 LNG 도입뿐만 아니라 수소,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사업과 에너지산업 분야로 협력 범위를 확장할 계획
- 본 협약에 따라 향후 울산 그린뉴딜 사업 확대를 위한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분야별 과제를 구체화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함
- 동서발전 박일준 사장은 “동서발전형 뉴딜 계획을 수립해 신재생에너지, 수소 산업 등 저탄소·친환경 에너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울산 에너지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동서발전과 SK 가스가 힘을 합쳐 지역 산업생태계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함
- SK 가스 윤병석 사장은 “SK 가스는 동북아 오일·가스허브의 LNG 터미널 사업을 기반으로 LNG 연료도입, 냉열을 활용한 수소 생산 및 유통, VPP 전기사업 등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동서발전의 풍부한 경험을 가진 우수한 인력이 함께 참여한다면 울산에서 성공적인 협력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서울경제

4. 아모레퍼시픽, 기후 변화 중·장기 전략 추진...신재생에너지 비율 63% 증가



- 아모레퍼시픽,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실시 중
- 아모레퍼시픽은 '19 년 국내 사업장 전력 약 7%를 신재생에너지로 사용했는데 이는 2018 년 신재생에너지 총발전량 대비 63% 증가한 수치이며, 아모레퍼시픽 본사는 전기 사용량의 11.2%를 지열·태양광·태양열 에너지로 대체
- 아모레퍼시픽은 온실가스 배출량과 물 사용량 감소 목표 설정, 폐기물 관리 시스템 등을 장기 목표로 설정, 관리하고 있음
- 아모레퍼시픽은 다양한 친환경 공정 기술과 제품을 개발하고 환경을 지키기 위한 투자도 늘리고 있으며, 지금까지 환경에 투자한 금액은 총 49 억 3000 만원 규모
-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플라스틱·미세먼지·기후 변화·화학물질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전문성을 키우는 데 주력함. 이를 통해 2019 년 내부 기후 변화 전문가를 배출한 데 이어 총 16 명의 에너지 경영 내부 심사원도 확보할 수 있었음

환경비즈니스

5. 새마을금고, 활발한 국제교류로 새마을금고 시스템 전파



- 새마을금고, 국제협력 사업을 진행하면서 새마을금고 시스템을 전파
- 개도국 금융 포용성 증진을 위해 2016년부터 한국국제협력단(KOICA)와 협업을 통해 시작된 새마을금고의 국제협력 사업은 2017년 한국의 금융포용사례와 토종 자본으로서 200 조의 자산을 보유한 성공사례를 전파하며 본격화
- 현재 새마을금고는 크게 세 국가와 집중적으로 교류를 이어가고 있으며, 태국·미얀마·우간다 등 개도국을 대상으로 함
- 미얀마의 경우 술래곤마을 부녀회가 새마을금고에서 사업자금을 대출받아 전통 수공예 자수사업으로 소득을 창출, 코로나 19 극복에 나선 모습이 조명되었으며 창출된 수익 중 50%를 다시 술래곤새마을금고에 출자금 형태로 납입하면서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하는 새마을금고 금융포용모델이 미얀마에서도 달성됨

NSP 통신

회원사 안내

1. 신규가입회원

10 월 16 일부터 11 월 1 일까지 UNGC 에 가입한 회원사는 2 곳입니다.

- 한빛향료
- 거제해양관광공사

2. COP/COE 제출회원

10 월 16 일부터 11 월 1 일까지 4 개 회원사가 COP 및 COE 를 제출했습니다.

- SK 하이닉스
- 한국석유공사
- 주택도시보증공사
- 한국에너지공단

미제출 회원사는 제출기한으로부터 1 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제명될 위험이 있사오니 빠른 시일 내에 COP/COE 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시는 기업/기관은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로 발간본을 송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회원사는 가입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첫 COP 를 제출하고, 이후 매년 COP 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영리 회원 역시 가입일로부터 2 년 이내에 첫 COE 를 제출하고, 이후 매 2 년마다 COE 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일까지 미제출 시, 미보고(Non-communicating)기업으로 분류되며, 이후 1 년 후에도 COP/COE 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리스트에서 제명(De-listing)됩니다. 이에 따라 COP/COE 제출일을 지켜주시고, 제출일에 대해 안내가 필요한 회원사는 한국협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3. 2020 년도 연회비 납부 해당 회원사 안내

<1-2 분기 연회비 납부 해당 회원사 (매출액 USD 5,000 만 달러 이상 기업)>

두산중공업, 미래에셋대우, 롯데쇼핑, 한국남동발전, 휴맥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화솔루션, 한국마사회, 한국중부발전, 한국철도공사, SK 이노베이션, 롯데지주

<1-2 분기 연회비 납부 해당 회원사 (SME, 공공기관 및 비영리기관)>

대덕섬유, 테라컨설팅그룹, 씨사이드코리아, 사람과세계경영학회, 한국자유총연맹, 충북대학교,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사)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협회, 산업정책연구원, 한국도자재단, (사)내부장애인협회,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천안시시설관리공단, 이젤, 유엔한국협회, 이젤, 사회보장정보원

2019 년부터 시작된 UNGC 글로벌 연회비 정책의 변화로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사는 본부 및 협회의 회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연회비 납부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회비 납부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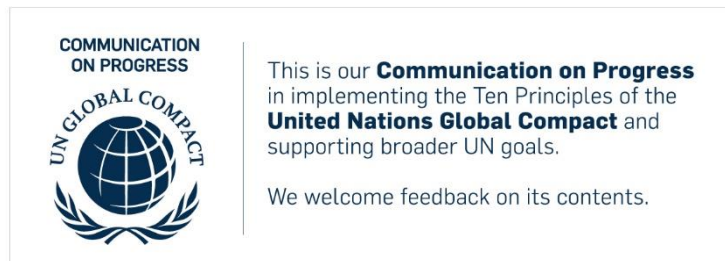
* 문의: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
T. 02-749-2149/50
Email. gckorea@globalcompact.kr

4. UNGC 로고 사용정책

유엔글로벌콤팩트는 회원과 이해관계자가 유엔글로벌콤팩트와 10 대 원칙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 하에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에서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에 한하여 “We support the Global Compact” 로고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로고 사용 허가 요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세가지 상태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이며, COP/COE 가 active 인 상태
- 기업의 연간 총 수익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하는 참여레벨을 선택한 단체
- COE 를 제출한 비영리 단체



“Communication on Progress the Global Compact” 로고는 COP 를 작성하는 회원이라면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의 사전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로고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5. 한국협회 가입 안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유엔글로벌콤팩트의 한국 내 이행과 확산을 위한 세계 네트워크의 한국 대표기관입니다. 회원사는 한국협회 참여를 통해 회원 브랜드 가치 전파 및 경영 효율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회원사 간 상호 교류 및 지식 공유의 장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기관은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 방법 및 참여 혜택 바로가기](#)

기업 정보 및 담당자 변경시 아래와 같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UNGC 본부 사이트(www.unglobalcompact.org)에서 관련 정보를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2. UNGC 한국협회 사무처에 변경된 사항에 대해 연락(메일/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89 순화빌딩 10 층

Tel: 02)749-2149/50 Fax: 02)749-2148

E-mail: gckorea@globalcompact.kr | Home: www.unglobalcompact.kr

Blog: http://blog.naver.com/ungc_korea

담당자: 이수란 과장/주임연구원